

브레이크 댄스 '광주'를 담다

광주 댄스팀 '애시드 브레이커즈' 'BEAT STREET-062 빛나는 광주' 힙합·퓨전 등 다이나믹 콜라보 선배 '탄핵 정국' 관객들에게 즐거움 선사

한 사람이 두 팔로 전신을 지탱하면, 그 위에 다른 몸이 '쌓인다'. 비보이 두 명이 협력해 고공 기술 '리프트(lift)'를 시연하자 관객들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풍차처럼 다리를 돌리는 윈드밀, 에어 플레어 등 힘 있는 파워무브가 계속되자 무대는 몸의 열기로 달아 오른다. 대규모 공연은 아니었음지라도 춤의 열정으로 준비한 '몸의 제전'이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광주 브레이크 댄스팀 애시드 브레이커즈(대표 이선호)가 'BEAT STREET-062 빛나는 광주'를 지난 14일 저녁 전일빌딩245 9층에서 펼쳤다. 현장은 다이나믹한 비보이, 스트리트 댄스를 즐기려는 다양한 연령대 관객으로 붐볐다.

올해 활동 21주년을 맞은 베테랑 스트리트 댄스 크루 애시드브레이커즈는 2022년 로컬 스트리트 댄스 크루 최초로 광주시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이들은 1970년대 뉴욕 브롱크스에서 시작된 브레이크 댄스를 '로컬 감성으로 풀어내겠다'는 취지에서 공연명에 광주 지역번호(062)를 붙였다.

이날 공연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당일 진행됐다. 시작에 앞서 이선호 대표는 "어려운 계엄, 탄핵 시국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달 전 공연 일정을 잡았는데 이렇게(시위 진행) 될 줄 몰랐습니다"고 했다. 말이 끝나자 그는 영상을 통해 광주 5·18 당시 전일빌딩에 남은 탄핵, 기권총과 헬기의 모습 등을 보여줬다.

비트 스트리트는 다양한 춤으로 젊은이들을 열광시켰던 동명 영화 '비트 스트리트(1984)'를 오마주, 많은 댄서들이 릴레이로 등장하며 레퍼토리를 공개하는 방식이었다. VALUE(정종호), BULLET(이현민), WATER.K(김동국), MOAI(한동혁) 등 댄서가 출연해 열기를 더했다.

인트로 무대 'THE X'와 라이브 퍼포먼스를 장식한 것은 지역에서 활동 중인 DJ HEUM(본명 이조흠)이었다.

그는 비트에 따라 변화하는 스크린 앞에서 다양한 사운드 효과(FX)를 실험했다. 탄테이블을 활용한 스크래치음을 만들거나 드럼 패드를 매개로 라이브 사운드를 구현, 댄서들과 합동 공연을 했다.

다음으로 퍼포먼스 'BEAT STREET 062'를 볼 수 있었다. 브레이크즈 스무 명 가량이 군무를 춘 뒤 개개인의 역량을 보여주는 여러 동작을 펼쳤다.

특히 공중에 물구나무를 선 채 몸을 정지하는 프리즈(Freeze), 팔로 몸을 지탱한 뒤 다리를 돌리는 토마스, 물구나무 상태로 회전하는 헤드스핀을 선보일 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어 2006년부터 지역에서 랩을 해온 MC QUASAR(전준성)는 타이탄 래핑과 라임 배치가 인상적인 '마이크로폰 체크'로 이목을 집중시켰



지역 브레이크댄스팀 애시드브레이커즈가 지난 14일 저녁 전일빌딩 245에서 'BEAT STREET-062'를 펼쳤다. 멤버들이 공중 기술을 선보이는 장면.



MC QUASAR(앞줄 가운데)와 애시드브레이커즈 멤버들이 관객들과 호흡하고 있다.

다. "킵스네어 드림, 비트로 빅뱅을 만들어낸다"는 그의 노랫말처럼 폭발력 있는 무대였다. 또한 '백투더 90's'는 힙합씬에서 사랑받아 온 아파치 비트와 8-90년대 곡을 리믹스 형식으로 섞은 노래였다.

7인의 비보이가 뭉쳤다가 흩어지면서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가는 'FREEDOM'도 이어졌다. 춤과 노래를 반복하면서 관객들에게 긴장과 이완의 감각을 선사했다.

올해 댄스팀에 입단한 새내기들의 무대도 있었다. '뉴 챌린저' 코너는 댄스 경력 3개월 차 심현수(각화중) 댄서부터 36살 민정복 댄서까지 루키들이 자신들의 열정을 뽐내는 자리였다.

이 대표는 "춤이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제 시작하는 댄서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었다"며 계획 의도를 밝혔다. 이들은 무대를 장악하면서 춤에 대한 '열정'이란 경력에만 비례하는 것이 아님을 증

명했다. 이외 광주시 최초로 하우스 장르를 활용한 베테랑 크루 'ONE MANIA' 무대도 볼 수 있었다. 하우스는 1980년대 초반 미국 시카고 디제이들이 전자 장비를 사용해 디스코를 만들며 탄생한 전자음악 장르다.

크루원 Zion D(윤두열), Minkkom(이민정), 2 UB(이유비), Vicky(김현정) 등이 출연해 1980년대 '디스코 붐'을 재현했다. 이들은 반복적인 4/4박자와 드럼 사운드 등 비트에 맞춰 리듬감 있는 동작을 보여줬다.

이날 공연은 'JUST NEW STYLE', 'ROCK STEADY', 'FREESTYLE FINALE' 등 개성 있는 레퍼토리로 끝을 맺었다. 흥겨운 몸짓은 하수상한 상황에도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잠시나마 즐거움을 '선물'하기 충분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짧은 시... 긴 감동

조필 광주디카시 연합 대표, 디카시집 'A보다 더 붉다' 펴내

디카시의 매력은 사진과 글의 융합이라는데 있다. 독자들은 시적 이미지를 간결한 시적인 언술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디카시가 짧고 간결하다고 해서 감동이 덜한 것은 아니다. 임팩트 있는 이미지와 시는 일반적인 시가 주는 여운과 감동을 넘는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르다.

조필(본명 조현) 광주디카시연합회 대표가 디카시집 'A보다 더 붉다'(퍼플)를 펴냈다.

작품집에는 '무등의 소환', '이별 후에', '타닝 포인트', '나의 어머니' 등 모두 90여 편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조 시인은 "짧은 언술을 통해서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디카시아말로 숏 문화에 익숙해져가는 현대인의 삶에 생동감 넘치는 윤희유 역활을 하기에 충분하다 하겠다"고 언급했다.

"완성도를 위해 몸 받치는 행위예술// 장인은 꽃을 피우는 그날을 위해/ 곁을 다듬고/ 아름다운 시어를 꿰기 위해/ 오늘도 의식을 카빙하는 나의 손길"

위 시 '부챗살'은 겨울날 모든 이파리를 털어버린 메마른 나무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보여지는 이미지는 부챗살의 모습을 환기한다. 지금의 벗은 모습은 언젠가 다가올 "꽃을 피우는 그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꽃을 피우기 까지는 메마르고 아픈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동심을 표현한 '한 눈 팔기'라는 작품도 미소를 짓게 한다. "그런 시선이 좋다// 새가 날아가는구나/ 대화의 선을 아는 아이야!// 스펙트럼에 갇힌 세상에/ 소통을 전달하는 너."

도로 앞에서 겨울옷을 입은 한무리의 아이들이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는 사이, 여자 아이 한 명이 혼자 뒤를 돌아보고 있다. 동일함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를 화자는 우회적으로 말한다.

한편 책에는 모두 5편의 디카시 칼럼도 게재되었다. '디카시 어원'과 '작성법', '디카시 서정성', '디카시 사유' 등 칼럼은 디카시에 대한 저자의 사유와 관점을 엿볼 수 있는 글들이다.

조 대표는 '디카시의 서정성'에서 "쓴다는 것은 시적 대상을 새롭게 해석한다는 말이다. 새롭게 해석해야 아름다움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며 "그러므로 사진의 설명이 아니라 내포된 미적 서정의 조화가 디카시를 아름답게 하는 생명이다"고 말한다.

한편 조 시인은 '바다로 간 피사의 사탑'을 펴냈으며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디카시 강사를 역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여고 총동창회, '선배' 천경자전 관람

고흥서 탄생 100주년 기념전...천 화백, 1937년 입학



천경자 탄생 100주년 기념 '찬란한 전설 천경자' 특별전을 알리는 게시판.

전남여고 총동창회(회장 류혜경)가 고흥 분청사기박물관에서 열고 있는 천경자 탄생 100주년 기념 '찬란한 전설 천경자' 특별전을 오는 19일 관람한다. 천경자 화백은 1937년 전남여고 입학생이다.

이번 특별전 관람에는 총동창회 임원 및 간사 30여 명이 참여한다.

류혜경 회장은 "이번 관람은 1937년 전남여고를 입학하신 천경자 선배님의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관람하여 천경자 선배님을 기억하고 추

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후배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한 찬란한 전설을 지닌 천경자 작가님의 업적을 통해 고흥군 발전에도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1일 개막한 '찬란한 전설 천경자' 특별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열린다. 고흥 분청사기박물관과 고흥아트센터에서 진행 중인 이번 전시는 천경자를 예술거목으로 자라게 해준 고흥은 물론 화가의 예술적 삶을 엿볼 수 있는 자리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